

전주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앞장

기업 기(氣) 살리기 지원 기업애로 해결방안 모색

전주시가 지역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7일 제2차 기업 기살리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 해결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일이다"면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업 기 살리기 추진과정에서 수렴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들에 대한 진행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시장은 이날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새롭게 발굴하는 일도 중요하다"지만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들과의 신뢰관계를 잃어서는 안 된다"면서 "진행과정을 기업에 피드백을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수렴된 건의사항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 따라 기업들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등 진행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기업 기 살리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4월부터 지역 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와 부서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된 총 147건의 건의사항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7일 시장실에서 제2차 기업 기(氣)살리기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있다.

시는 또 내년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제품들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도록 시장개척단 운영과 수출상담회 개최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기업 기 살리기를 통해 지역기업의 판로가 확대되고 수출이 늘어나면 기업의 신규투자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시장은 "기업 기 살리기는 곧 지역의 청년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와도 직결된 문제다"며 "내년에는 수

출에 역점을 두고,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지금은 작지만 여기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민선 6기 후반기 전주시정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에 두고, 작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제품 판로확대와 자금 지원, 수출증대를 위한 '지역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실·국장들로 구성된 지역기업 살리기 대책 실무단을 구성하고,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격주로 시장 주재의 지역기업 살리기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서별 지역기업 제품 구입 실적과 애로사항 추진결과를 함께 논의하고 점검해 왔다.

시는 기업 현장방문과 조찬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지역 기업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는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평화보건지소,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전주시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팔소매를 걸어붙였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 평화보건지소는 지난 16일 미송평화하이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6일까지 8주간 제3기 지화자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지화자 건강교실은 평화보건지소 건강관리팀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건강상태를 측정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한 여름나기 요령 등을 교육하게 된다. 또, 어르신들의 유년성 증진을 위한 스트레칭과 근력강화운동, 낙상예방을 위한 건강체조 등 신체활동을 주 2회

씩 8주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평화보건지소는 이번 3기 교육에 이어 오는 10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4기 지화자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도 무서운데 시원한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같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운동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무더위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 건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재 기자

덕진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전개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원석)는 17일 출근길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의용소방대 및 소방서 직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지화차·펌프차·구급차별 '소방차 길 터주기'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출근길 차량통행이 많은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를 홍보를 전개했다.

캠페인에 나선 전주덕진소방서 여성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은 출근하

는 도민과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주차 금지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화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평소 골목길 주차 시 소방차량 통행 여부를 살피고,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시설물 등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한지산업지원센터, 친환경 유기농산물 박람회 참가

다섬유와 키토산, 활성탄 등 친환경 소재로 만든 디자인 포장재가 국내 유명 박람회를 통해 소개될 전망이다.

한국전통문화재단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2016 친환경 유기농산물 박람회'에 참가해 기능성 식품 포장용 내지와 소포장 패키지 등 친환경 디자인 포장재를 전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전시되는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은 한지산업지원센터가 그동안 진행해온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인 '신선농식품 포장 기능성 강화를 위한 다섬유 친환경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발'의 결과물로서, ▲키토산·온노 코팅 식품포장용 내지 ▲기능성(활성탄) 식품포장용 내지 등이다.

또한 개발된 내지를 활용해 농식품을 직접 포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일반형·고급형 기준으로 소프트와 하드타입의 소포장 패키지 12종 ▲버

섯의 형태를 모터브로 디자인한 친환경 다섬유 볼드형 3종을 각각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유기농 전문 박람회로, 'Natural Week(자연그대로의 삶, 안전한 먹거리)'라는 주제 아래 ▲발효식문화전 ▲귀농귀촌체험학습 박람회 ▲할랄엑스포코리아가 동시 개최된다. /김영재 기자

음식점 절도행각 20대 구속

군산경찰서는 17일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장모(2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에 군산시 산복동의 한 식당에 들어가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6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 삼천 야(夜)한 플리마켓 열린다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막걸리골목 공영주차장에서

전주시 삼천동 막걸리골목이 지역 공예가들의 수공예품을 보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문화장터가 된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은두레공동체인 삼천사람-시민예술가모임과 삼천누리공동체가 함께 기획한 '삼천 야한 플리마켓'이 오는 20일부터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삼천동 막걸리골목 공영주차장 앞에서 정기적으로 열린다.

'삼천 야한 플리마켓'에서는 삼천동 공예작가 10여명이 참여해 보는 재미

와 사는 재미, 파는 재미, 만드는 재미가 있는 아기자기한 핸드메이드 작품들을 선보여, 삼천동 막걸리 골목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게 된다.

특히 주최측은 플리마켓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삼천동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에 기부,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예정이다.

이번 플리마켓을 기획한 '삼천누리 공동체'와 '삼천사람-시민예술가모임'은 삼천동의 공예, 공방 활성화와 대표 공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결성한 모임으로, 삼천동에 있는 공예·공방 작가들의 작품들을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플리마켓을

기획하게 됐다.

삼천시민-예술가 모임과 삼천누리 공동체 관계자는 "추후에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에게 각종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재능기부의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며 플리마켓을 활성화 시켜 시민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공방거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빅거리에 치우쳐있는 삼천동 막걸리 골목에 공예작가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주시의 대표 공방거리 및 장터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가정집 침입 강도강간 50대 징역 12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7일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도상해)로 기소된 강모(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했다. 강씨는 4월11일 오전 1시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A씨(58·여)의 집에서 A씨를 칼자부로 때린 뒤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A씨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다 금품이 없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재 기자

전북은행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